

지난 주 말씀 요약 (5 / 20)

제 목 : 갈렙의 신앙과 그 축복
성경말씀 : 여호수아 14 : 6 ~ 15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 12의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 중 유다지파에서 뽑힌 정탐꾼이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 떨며 원망 불평을 한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며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어깨에 매달린 메뚜기처럼 연약하여 싸워봤자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낙심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며 모세 지도자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를 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갈렙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로부터 40여년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랑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약속하신 땅의 분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이 알고 있다. 심지어는 잡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나 철학자들까지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자기들의 사상이나 논리에 이용한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이는 정통 기독교인들도 비슷하다. 성경말씀은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전능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일점일획 여김없이 이뤄지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45년 전에 말씀이었다. 10년 20년 30년 광야에 방랑 생활을 하면서 언제 헤브론 땅을 얻을 것인지 기약이 없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광야 방랑생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생활을 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 받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뤄질 것임을 믿고

헤브론 산지를 나누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러므로 약속하신 말씀의 45년에 이르러서 그대로 이뤄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구약 성경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복락을 주신다. 영광중에 구름타고 재림하시며 우리는 천사들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말씀하신 그대로 당장 이뤄질 말씀도 있고 45년 혹은 100년 또는 500년 1,000년에 걸쳐 이뤄질 말씀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100% 이뤄진다는 것이다.

둘째, 마음에 성실하대로 보고한 신앙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하며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보고는 “가나안 족속들은 크고 강하여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사람 어깨에 달린 메뚜기 같아 가나안 족속을 당할 수가 없고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공포에 떨며 원망불평을 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족속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고 담대하게 말했다.

이렇게 보고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10명대 2명, 5명대 1명, 현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5명이 반대하는 일에 나 혼자 1명이 찬성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 5명이 찬성하는 일에 나 혼자 1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하여 반대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하든, 마음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실한 신앙의 사람이며 축복받을 사람이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신앙이다.

온전히 좇았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득 채웠다는 뜻이 있다. 즉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채워 나갔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일점일획 변함없이 이루어 질 것을 믿고,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채워 나갔다.

우리의 신앙도 진일보해야 한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변함없이 이뤄질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말하든지 그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채워 나가야 한다.

갈렙의 신앙으로 받은 축복은,

1. 가나안 좋은 땅을 먼저 받고 강건한 축복을 받았다.
2. 하나님 말씀 성경에 믿음의 용사로 기록되고 칭찬을 받았다.
3. 천국에 영광과 상급을 크게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들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성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46. (새 찬송가 2. 31)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고린도전서 12장에서

○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 또한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 아 멘 -

찬 송 : 173 (새 찬송가 184)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고린도전서 12 : 27-31 신약 279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에 충성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33 (새 찬송가 484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6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마리아 헌신예배

사 회 : 임예진 집사 (다음 김소영 집사)

기 도 : 채현숙 집사 (다음 김선무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고명순 권찰 (다음 이선화 권찰)

기 도 : 최숙희 권찰 (다음 백선주 권찰)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신앙성장 프로그램 체크

1 교구 체크를 했습니다.

2 교구 신앙성장 프로그램 체크할 차례입니다.

교구장님은 잘 거두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하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잘 안했다고 해서 계속하여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2. 금요기도회

6월 1 일 밤 금요기도회는

에스더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선교 예정

본 교단 선교부의 계획에 따라서

6월 초부터 중순까지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담당목사의 선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헌신예배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마리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현주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백감님 님, 화정 3동 주택

☺ 이동건 이소연 님, 풍암동 주 주택

지난 주 말씀 요약 (5 / 27)

제 목 :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라
성경말씀 : 고린도전서 12 : 27-31

본문 말씀에 배경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사와 직분으로 인하여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직분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뽐내며 좋은 직분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고, 직분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비하시키고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여 조화와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27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직분이 있든 없든 은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셨으며,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이나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하시면서,

어떤 좋은 직분이나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부분일 뿐 뽐낼 것이 아니요, 연약하고 은사나 직분이 없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모두 다 존귀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위 말씀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에 신앙의 일이나 일반 사회적인 일에서 뽐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 비하시키며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선망하고 동경을 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 한다면 “사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말에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나, 외제 명품이라면 몇 배의 바가지를 쓰면서라도 사려고 안달을 하고, 직장인 중,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20% 쯤 이고 그 20 % 중에서도 반절쯤이 기회가 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마음을 갖고 있다는 통계니, 결국 직장인 10명 중 자기 직장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1명쯤으로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를 적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천하만사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우리를 아무렇게나 존재케 하시겠는가? 잠언 16: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하셨고,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말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고 하셨다.
즉, 사람이 계획한다 해도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찌 적당치 않게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겠는가?! 우리가 욕심으로 생각하고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 몸과 재능과 우리와 연관된 가족관계나 인간관계까지도 다 적당하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어서 사도로서 아주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 세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 하셨으니, 이는 곧 “바울아! 네가 눈병이 있어 불편하고 부끄럽다 해도 나는 너에게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신체 구조와 재능과 환경과 인간관계를 갖게 하신 주권을 믿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이나 다른 환경을 선호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둘째,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신앙 환경과 삶의 조건으로 존재케 하심을 믿을진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인간관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하지를 말고,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이요, 인간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아하! 나에게 가장 적당한 남편과 아내로 주셨구나! 서로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도 가장 적당한 자녀와 부모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자기의 신체 조건이나 재능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신앙 환경도 자기에게 가장 적당하게 해주신 줄 믿고, 다른 것을 동경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 충성해야 한다.

나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할진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신앙과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맡겨 주신 일이고 환경이라 우리의 당한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겠다.

넷째, 사랑을 더하라.

본문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며 이어진 말씀이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해주신 주권을 믿고, 감사하며, 충성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사랑하면 행복해 진다.

2012 - 23

2012 년 6 월 3 일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50. (새 찬송가 1. 3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사도행전 13장에서

○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 또한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

●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과 여러 회당에 전할 때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 아 멘 -

찬 송 : 184 (새 찬송가 252)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사도행전 13 : 1 ~ 12 신약 207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좋은 교회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60 (새 찬송가 324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6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김소영 집사 (다음 이수현 집사)

기 도 : 정창주 집사 (다음 공옥열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선화 권찰 (다음 최명희 집사)

기 도 : 백전주 권찰 (다음 강복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신앙성장 프로그램 체크

1 교구 체크를 했습니다.

2 교구 신앙성장 프로그램 체크할 차례입니다.

교구장님은 잘 거두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하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잘 안했다고 해서 계속하여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2. 금요기도회

6월 8 일 밤 금요기도회는

루디아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선교 예정

본 교단 선교부의 계획에 따라서

6월 초부터 중순까지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담당목사의 선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월례 제 직 모임

오후 예배 후 3시 10분에 본당에서,

제직들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현주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백감님 님, 화정 3동 주택

☺ 이동건 이소연 님, 풍암동 주은모아 @

지난 주 말씀 요약 (6 / 3)

제 목 :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
성경말씀 : 사도행전 13 : 1 ~ 12

성경에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가 많이 나타나 있다.
그 중 하나로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가 본문의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는
첫째, 말씀이 충만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새롭게 계시 받거나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적용시켜 풀어 전해주고 사람들을 그 말씀대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였고 교사는, 선지자들이 이미 받은 말씀이나 풀어 전하는 말씀을 그 뜻대로 다시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다. 그런데 선지자들, 교사들이라고 말씀해서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많았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충만하게 선포되고 역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고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선포되지를 않고 인간의 지식과 사상에 의해서 훼손되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딤후 3: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도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한다.” 고 증거하고 있다.(고후 2:17)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하되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그대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다

둘째,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교회였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사역자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고,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 동생이니 왕과 젖을 같이 먹고 자랄 만큼의 왕족인 것이다. 사울은 사도 중에 맨 나중에 부름 받은 사람이니, 다 각각 출신과 환경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인데, 인종의 차별이 없고 민족이나 귀천의 차별이 없으며, 유무식이나 선후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협력해 나가는 교회였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주님을 섬기며 세워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생각이 좀 다르고, 믿음의 정도나 수준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의 일이라 할 때에는 서로의 다름을 접고 하나로 뜻을 모아 받들어 나가고 협력하여 세워 나가는 것이다.

셋째, 기도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대개 자기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 할 때가 많다. 순수하게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는 기도를 얼마나 해봤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

넷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교회였다.

성령님의 거룩한 영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주장을 받는가? 오늘날도 성령님의 주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즉 하나님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는 것이 된다.

다섯 번째 선교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 하는 교회였다.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며 안수 받아 선교사로 파송됐다. 그러나 거짓선지자 들의 비뚤어지고 왜곡된 가르침은 인간의 사상, 지식, 철학과 인본으로 가르치고 마귀의 영을 받아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본문에서도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대적했지만 바울의 전도로 총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협력해나가는 교회

주님 섬기기 위해 금식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교회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교회도 생명의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나갈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용 상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용 상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8. 29. (새 찬송가 6. 3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 갔더니

○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 매

○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마태복음 25 장에서 - 아 멘 -

찬 송 : 161 (새 찬송가 174)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25 : 1 - 13 신약 42 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예수님을 맞이 할 준비를 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62 (새 찬송가 175)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6 월 안내]

남, 김정한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이수현 집사 (다음 김선무 집사)

기 도 : 공옥열 집사 (다음 박정빈 집사)

말씀증거 : 김용상 목사 마태복음 24장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최명희 집사 (다음 박선옥 집사)

기 도 : 강복희 집사 (다음 이인순 집사)

말씀증거 : 김용상 목사 :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단기선교 가신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본 교단 선교부의 계획에 따라서

6월 초부터 중순까지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담임목사님 선교 중 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신앙성장 프로그램 체크

2 교구 체크를 했습니다.

3 교구 신앙성장 프로그램 체크할 차례입니다.

교구장님은 잘 거두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하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잘 안했다고 해서 계속하여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2. 금요기도회

6월 15 일 밤 금요기도회는

1교구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4. 연합전도회 기도회

작수월(6월,8월,10월,12월)넷째주 연합전도회 임원진 기도회 모임이 석정동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기도제목 :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현주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백감님 님, 화정 3동 주택

☺ 이동건 이소연 님, 풍암동 주은모아 ㉔

지난 주 말씀 요약 (6 / 10)

제 목 :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성경말씀 : 마태복음 25 : 1 ~ 13

유대교의 결혼식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는 당사자의 부모를 통한 결혼하자는 서약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당사자의 가족들이 함께한 약혼식이 있으며,
이 기간은 약 1년쯤으로 이때에 결혼할 준비를 하게 된다.
세 번째는 결혼식으로, 1주일의 축제 끝에 신랑 친구들이 횃불
을 들고 신부 집으로 찾아가면 신부도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으로 마쳐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당시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신앙자세를 말씀하신 것이다.

첫째, 성령의 기름으로 재림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1-4)

오늘 말씀에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공통점은, 10명이 모두 다 처녀인 것이다. 신랑 앞에 흠이 없
는 정결한 처녀로,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 할 성도들의 순결
한 신앙의 준비 자세들을 뜻한 것이다.

신랑을 맞이할 열 명의 처녀는 꼭 열 명을 뜻한 것이 아니고,
10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채워진 수, 가득 찬 만수로, 신약과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뜻한 것이며, 이 열 처녀가 다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고 함께 기다린 것이다.

또한 3-4절에는 열 처녀가 다 같이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잔치 집에 문이 닫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여! 주여!” 호칭하며 “문 열어 달라”고 애원한 것이다.

다른 점은, 열 처녀 중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했고, 다섯은
미련한 자라 했고, 슬기로운 자는 등과 등에 있는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등과 등에 있
는 기름만 준비한 것이다. 여기서 등과 등에 있는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은 곧 슬기로운 자이며, 등과 등에 있
는 기름만 준비한 것은 미련한 자였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재료이며, “등불”은 밤의 어둠을 밝혀
주는 빛이다. 성경에서 밤이나 어둠은, 죄악으로 물든 캄캄하고
답답한 환란의 시대를 뜻한다. 즉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께서는 낮에 좋은 때가 아니고, 캄캄하고 답답한 밤중에, 죄악
과 환란이 가득한 시대에 재림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등불”은, 죄악으로 캄캄하고 답답한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며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한다. (마5:16)

이제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재료이니,
캄캄하고 답답하여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 시대에
옳고 선한 일을 하여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성령님의 은혜”를 뜻하며 “그로 인한 믿음의 실력”을 뜻한다.
성도들의 옳고 선한 경건한 행위, 즉 믿음의 실력은,
성도들 자신 그 개인의 의로움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 사모하여 성령님의 은
혜와 은사를 계속적으로 공급 받아야 하며,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의 실력으로 인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선하고
옳은 믿음의 빛을 계속 비추어 나가야 한다.
평소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캄캄하고 답답한 죄악과 환란이 극심한 때,
곧 주님의 재림 때에도 선하고 옳은 행실을 잘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믿음으로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5~7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처녀가 다 졸며 자는데,
한 밤 중에 “신랑이 온다. 맞이하러 나오라” 는 소리가 났다.
주님의 재림은 죄악이나 환란의 초기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나 환란이 가득 찬 아주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오신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계속하여 불을 환하게 밝힐 기름, 곧
성령님의 은혜와 믿음의 실력이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계속하여 불을 밝힐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때서야 기름을 얻으려고 기름 빌려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 아무에게서도 기름을 빌릴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생활하기 좋은 때에 열심을 내서
성령님 은혜를 받아 믿음의 실력, 기름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
현재만 아니라, 한 밤 중 같은 죄악과 환란이 극심한 주님 재림
의 때에도, 선한 믿음의 행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재림이 임박하면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셋째, 재림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이다.
성령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자기 믿음의 실력은, 누구에게 빌려주
거나 또한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나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는 자기의 것이며,
그 은혜로 만들어진 믿음의 실력 역시 완전하게 자기의 것이다.
부모나 형제 또는 믿음의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지혜이며,
그 때에 재림의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2012 - 24

2012 년 6 월 17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려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9 (찬송가 1. 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시편 107편에서

○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 여호와께서 그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그를 영원히 찬송할지라도. - 아 멘 -

찬 송 : 179 (새 찬송가 185)

기 도 : 목 사 (다음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사도행전 13 : 1 ~ 12 신약 207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60 (새 찬송가 324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6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정명숙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김선무 집사 (다음 임미이 집사)

기 도 : 박정빈 집사 (다음 김정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박선옥 집사 (다음 이미숙 집사)

기 도 : 이인순 집사 (다음 김수미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고린도후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고린도후서)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남 여 전 도 회 월례모임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 예전대로

각 실에서 여 남 전도회 6월 모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교제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여름 성경학교 예비 강습회

내일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서울 창광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 예비 강습회가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3. 금요기도회

6월 22 일 밤 금요기도회는

2교구 전 구역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 선교 감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여러 교우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중국에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 공동회의 투표 안내

홍의남 협동 장로님의 시무장로 신임투표를

다음 주(24일) 오전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김현주 님, 풍암동 한국 아파트

☺ 백감님 님, 화정 3동 주택

☺ 이동건 이소연 님, 풍암동 주은모아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들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협동장로 :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지난 주 말씀 요약 (6 / 20)

제 목 :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경말씀 : 시편 107 : 4 ~ 9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원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때로는 우리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친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시편 42: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19:131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벤전 2:2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다면 어떤 때에 사모하고 간구할 것인가?
물론 좋은 때는 좋은 그대로 어려운 때는 어려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을 내어 간구해야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는,
첫째, 안정을 하지 못하고 방황할 그때 은혜를 사모하라. 4절
안정된 직장도 없고 삶의 터전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
이걸 해도 시원치 않고 저것을 해봐도 마땅치 아니해서 안정
을 하지 못하고 마음과 몸이 다 갈등을 하며 헤매게 된다.
이 때 신세 한탄이나 세상에 원망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사모할 때인 줄 알고 갈급한 마음으
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정착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
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때로는 자녀나 가족 또는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안정을 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다.
그때에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둘째, 주리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할 때 은혜를 사모하라. 5절
일반 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늘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때도 있지만

캄캄하고 답답하며 감동이 없는 피곤할 때도 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의 확신이 없고, 찬송을 해도 찬양의 즐거움이
없으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인 줄 알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뜨거운 마음을 품고 신령한 은혜를 구
해야 한다. 누구나 신앙생활에의 굴곡이 있다. 은혜 충만하여
상승에 상승을 거듭 할 때도 있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신앙의 즐거움이 없이 답답하고 무기력하며 만사가 시들한 때
가 있다. 이때도 주위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살피고,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이다.

셋째, 근심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6절
이세상은 근심 될 일도 많고 고통스런 일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구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신 뜻은,
그런 때에도 아무 것이라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오는 근심 걱정과 고통은, 죄에 대한 징벌과 마귀의
충동에서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고통이 있을 때에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인 줄 알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넷째, 죄 값에 징벌을 받아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 10-20절
사람은 본의 아니게 또는 알면서 고의로도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 값에 따르는 징벌이 오는데, 때로는 그
죄에 따라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도 되고, 모든 식물을 싫어하
여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없고,
무인도에 단 한 사람처럼 외롭고 비참한 고단한 삶일 때도 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으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사죄의 은총과 돌보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죄 값에 대한 징벌을 하심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징벌을 통하여 죄를
깨달도록 하여 죄를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범죄로 인한 징벌을 받는 중이라 하여도,
그 징벌이 설혹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극심한 것이라 하여도, 그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8 시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8. 13 (찬송가 6. 6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요한복음 20 장에서

○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창 자국에 넣어 보라

○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를 나를 본 고로 믿느냐 ?

●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아 멘 -

찬 송 : 241 (새 찬송가 202)

기 도 : 목 사 (다음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요한복음 20 : 27 ~ 31 신약 184 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성경을 기록케 하신 목적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00 (새 찬송가 235)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6 (새 찬송가 2)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7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한나 헌신예배

사 회 : 최순덕 집사 (다음 이윤교 집사)

기 도 : 노인숙 권사 (다음 김정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마태복음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미숙 집사 (다음 박정빈 집사)

기 도 : 김수미 집사 (다음 임미이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마태복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마태복음)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공동회의 투표 안내

홍 의남 협동 장로님의 시무장로 신임투표가
오늘 오전예배 광고 후에 이 자리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금요기도회

6월 29 일 밤 금요기도회는 2교구 전 구역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구역 연합예배

6월 구역 연합 예배를 금요일(29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교육관에서 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4. 기도실 안내

본 교회 교육관을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실로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방합니다. 틈을 내어 기도
하시고 응답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5. 헌신예배 안내

오늘 오후 예배는 한나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6. 결혼식 안내

김 철진 박 숙희 잡사님의 아들 영환군의 결혼식이
6월 30일(토) 오후 2시에 경기도 안양 에스톤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대형버스가 8시에 출발 합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정 재정 님

풍암동 현대 @

☺ 정 영중 황 영화 님

풍암동 현대삼환 @

지난 주 말씀 요약 (6 / 24)

제 목 : 성경을 기록케 하신 목적
성경말씀 : 요한복음 20 : 27 ~ 31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과 말씀을 글로 기록케 하여 친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친구약 66권의 말씀이 어찌 보면 많은 것도 같지만 사실은 많은 말씀이 아니다. 어느 개인의 전집이나 국가의 역사 기록도 많은 분량을 차지 하는데, 성경 역사는 창세로부터 약 4,000년간의 유구한 역사이며, 흥망성쇠를 거듭한 인류의 역사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록이기에 사실은 양적인 면에서 적은 분량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행적이나 베푸신 신적 역사와 능력만을 기록해도 그대로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이 있다고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요 21:25)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약 39권, 신약 29권만을 기록케 하셨을까? 그 답을 본문 31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나 선각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인권 운동을 하는 해방가나 사상가나 도덕군자쯤으로 알고 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기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만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 예수이시면서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시라, 이를 믿게 하시려고 성경 친구약 66권 말씀을 기록케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자세하게 풀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니,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의 죄 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인생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자기가 잉태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지르는 범죄가 있다. 이 죄 값으로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월~월~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인생들이 자기 죄 값으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신께서 그 죄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케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며 ① 왕 ② 선지자 ③ 제사장 등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그리스도란 위의 세 직분을 한 번에 다 받은 것으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오직 예수님께서만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뿐으로 우리를 통치하며 보호하며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이며, 하늘과 땅의 신령한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 누구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 선지자로 완전하다는 뜻이며, 우리 죄를 대속하며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해줄 분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 66권을 기록케 한 것이다.

둘째,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이다.

우리의 생명은 죄 값으로 죽은 생명이요 저주 받은 생명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 친구약 66권 말씀을 기록케 하셨다. 우리 인생이 전쟁이나 천재, 또는 질병과 궁핍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 비참한 여러 일들을 당한다. 그렇게 해서 그 최악의 경우와 최후에는 죽음이 온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새 생명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악조건이라 해도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죽음과 더불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더 좋은 생명, 천사들처럼 신령한 생명으로 사는 신비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고 천국 생명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복하여 승리의 삶을 살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케 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친구약 66권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말씀이 전혀 필요치 않다. 새로운 계시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마귀나 이단의 미혹이기에 이를 배격해야 한다. 이미 주신 66권 말씀을 익혀서 순종하여 더 좋은 생명 빛나고 영광스런 생명을 누리야 한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5 (찬송가 1. 2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사사기 2 장에서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 그들이 그 사사(士師)도 청종치 아니하고
-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던 그 조상의 길을 속히 떠나서
- 그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여호와께

슬퍼 부르짖음으로 돌보아 주셨음이라. - 아 멘 -

찬 송 : 31 (새 찬송가 67)

기 도 : 김정한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사사기 2 : 16 ~ 23 구약 363 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78 (새 찬송가 419)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7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이윤교 집사 (다음 임예진 집사)

기 도 : 김정숙 집사 (다음 박종복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마태복음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박정빈 집사 (다음 신윤숙 집사)

기 도 : 임미이 집사 (다음 백금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 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월례 제직회의

오후 예배 후 3시 10분에 본 장소에서
7월 월례제직 모임이 있습니다.

2. 금요기도회

7월 6 일 밤 금요기도회는 4교구 전 구역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신앙성장 프로그램

금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안하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5교구 체크를 합니다.
구역장 교구장님은 모아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4. 기도실 안내

본 교회 교육관을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실로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방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틈을 내어 정성어린 기도를 하시고
응답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5. 총회 소식

본 교단 총회의 헌법 개정을 위해
헌법 개정위원회가 2~3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본 신학대학원에서 있어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정 재정 님 풍암동 현대 @

☺ 정 영중 황 영화 님 풍암동 현대삼환 @

지난 주 말씀 요약 (7 / 1)

제 목 : 사사(士師)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성경말씀 : 사사기 2 : 16 ~ 23

“사사”(士師)는 “지도자” “재판장” “구원자”라는 뜻으로 주전(B.C) 1,400년쯤에서 1,050년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사람들을 뜻한다.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후로 뚜렷한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정치 행정 군사와 신앙까지 아울러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왕에 버금가는 권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뜻,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들에게서 건지려 하심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안착을 했지만 주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부족들이 국가를 형성하여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주변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것에서 건지시고 해롭게 하려는 것에서 보호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종 목사들을 세우셨다.

1) 불의한 세력, 마귀, 이단, 사이비한 것들의 노략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있고,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과 함께한 이단들과 사이비한 세력들이 있다. 이것들은 틈만 나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롭게 한다. 사사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한 세력이나 마귀 이단 사이비한 것들을 분별토록 하여, 그들의 접근이나 노략질이나 해롭게 하는 것에서 건지고 보호하고 물리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7:15)

2) 타락된 문화나 잘못된 풍습에서 건져내려고 세우셨다.

세상에는 타락된 문화가 너무 많이 있다. 인터넷, 스마트 폰, TV 등에서도 타락된 문화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고, 현실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타락된 문화나 잘못된 풍습 등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길로 이끌어간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나 목사를 세운 것이다.

3) 죄악에서 건짐 받고 보호 받으라고 사사를 세우셨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나 목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 복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4) 불행한 사건 사고와 질병에서 건지시고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이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불행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사나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불행한 사건과 사고와 질병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데서 예방해주고 건져주고 보호해 주도록 하려고 세우셨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사사나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여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 지켜주셔서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다.

사사들이 왕은 아니라하여도 그와 비슷한 명예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백성들 위에 세력을 쓰고 군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나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사사나 목사들 자신을 위하여 그 명예와 지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오늘날 자칫하면 교회나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사사나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일이다.

따라서 사사나 목사 자신들도, 행여나 자신들을 위하여 백성이나 교회나 교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백성이나 교인들 스스로도 사사나 목사가 교인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세워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때로는 사사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잘못을 질책할 수 있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며 삶에 간섭을 하기도 하며, 삶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사나 목사를 거리낌의 대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대립 관계에 서서,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세계에 끊임없이 시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일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복 받을 일이 아니다.

마음을 열고 사사나 목사와 친근히 하며, 이들이 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찾아오는 삶에 어려움, 진퇴양난의 질곡에서 목사와 의논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도우심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질곡에서 벗어나서 영 육간에 행복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사사나 목사는, 교인들 자신의 영 육간에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렇기에 존재함을 알고, 자신들의 삶에서 목사를 유익하게 이용하고 선용하며 살아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한 신앙의 길이다.

2012 - 27

2012 년 7 월 8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들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 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28 (새 찬송가 2. 2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이사야 30 장에서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화 있으리라 패역한 자식들이여

●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했음이라

●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 이집트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있으니

●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며 오히려 부끄럽게 되리라. - 아 멘 -

찬 송 : 13 (새 찬송가 64)

기 도 : 목 사 (다음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이사야 30 : 1 ~ 5 구약 999 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46 (새 찬송가 391)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7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임예진 집사 (다음 이미숙 집사)

기 도 : 박종복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마태복음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신윤숙 집사 (다음 김 선 집사)

기 도 : 백금숙 집사 (다음 이해랑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 도 : 목사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총회 소식

본 교단 총회의 헌법 개정을 위해

헌법 개정위원회가 9일~11일까지 열리게 되므로

경기도 본 신학대학원에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 금요기도회

7월 13 일 밤 금요기도회는 5교구 전 구역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신앙성장 프로그램

금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안하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신앙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5교구 체크를 합니다.

구역장 교구장님은 모아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4. 기도실 안내

본 교회 교육관을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실로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방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틈을 내어 정성어린 기도를 하시고

응답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정 재정 님 풍암동 현대 @

☺ 정 영중 황 영화 님 풍암동 현대삼환 @

☺ 정 명숙 님 풍암동 주은모아 @